Korean and African American Relations in Los Angeles : Justin Chon's *Gook*

〈국〉에 나타난 LA 한인과 흑인 관계

Jin-Hee Yim¹

임진희¹

¹ Professor, English and Cultural Studies, Namseoul University, Korea, yimjin@nsu.ac.kr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the sociocultural matrix of Korean-African American relations and immigrant merchant-native customer conflict connected to a large-scale disturbance in the Los Angeles riots of 1992. It deals with issues involved in cultural disparities, historical marginalization, and racialized stereotypes of social minorities in the economic geography of multi-racial,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urban space.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Justin Chon's *Gook*, a 2017 American film 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LA riots, traces the dominant racial and cultural divisions in black-Korean space and ensuing traumatic violence of the interethnic struggle. This work focuses on the socioeconomic dynamics resulting from racial hierarchy, lack of social communication and mutual prejudice and frustration on both Korean immigrant merchants and African American native consumers. *Gook* presents a portrait of the uncommonly interwoven young 'black-Korean family,' and opens up dialogues between Koreans and African Americans for a better awareness of social empathy. The transracial empathetic perception of commonalities and life awareness beyond misconstrued and distorted generalizations of social outsiders enhances the cultural literacy for black-Korean civil discussions. A deep understanding of the communal respect of life in *Gook* ultimately leads to extending young people's minds for a democratic awareness of civic concern and to envisioning a perspective of social healing communication for future challenges and outlooks of Korean-African American coexistence and interactions.

Keywords: Korean-black Conflict, 1992 LA Riots, Korean American Film, Justin Chon, *Gook*

요약: 본 논문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인종 폭동에 나타난 대도시 공간에서의 한인과 흑인 관계, 특히 한인 이민 상점주와 흑인 토착시민 소비자 사이의 갈등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구도를 분석한다. 한흑 갈등의 원인으로 문화적 차이, 역사적 주변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종적 스테레오타입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LA와 같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대도시 공간에서의 경제적 지형도를 핵심 쟁점으로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LA 인종폭동 25주년에 제작된 한국계 미국 이민 2세대 영화로서 저스틴 전(Justin Chon)의 〈국〉(*Gook*, 2017)을 중심으로 하여, 소자본 자영업 공간에서의 한흑 갈등에 나타난 경제지리적 역학관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문화적 편견, 인종적 분리, 인종서열 관념, 대도시 폭력의 쟁점을 분석한다. 이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소수자로서 한흑 간의 공통적인 좌절과 분노의 양상을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흑 유대 형성의 근간으로서 생명

Received: June 05, 2021; 1st Review Result: July 22, 2021; 2nd Review Result: September 05, 2021
Accepted: October 31, 2021

공동체로서의 상호 연결성과 초인종적 공감의 영역에 관한 인식에 주목하며, 미국 내 다인종 커뮤니티의 공존을 향한 문화적 문식성을 확장하는 시민 대화의 청사진을 탐색한다. 특히 〈국〉에서 제시된 LA 인종 폭동의 희생을 대가로 한 생명계의 상호 연결성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흑 공존의 에피파니는 사회적 공감에 대한 민주적 인식, 사회치유적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는 미래지향적 전망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는 한흑 역사의 전기이자, 초인종적 공감에 근거한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의식 확장을 전망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어: 한흑 갈등, 1992년 로스앤젤레스 인종폭동, 한국계 미국 영화, 저스틴 전, 〈국〉

1. 서론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 공간에서 한국계 미국 이민자의 삶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관계로 얽혀있다. 1992년 4월 29일에 시작된 LA 코리아타운 사태는 흑인 로드니 킹(Rodney King)을 폭행한 백인경찰에 대한 경징계와, 일년 전 15세 흑인소녀 라타샤 할린스(Latasha Harlins)를 절도 오인으로 총격 사망에 이르게 한 두순자(Soon Ja Du) 상점주인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이 연장선상에서 간주되면서 촉발된다. 백인과 한인에 대한 분노가 중첩되는 가운데, 흑백 인종간의 해묵은 인종차별 문제가 한흑 갈등으로 증폭된다. 치안면에서 백인 커뮤니티 보다 접근이 용이한 코리아타운에서 주로 방화와 약탈이 이루어지고 한인 상점은 주공격 대상이 된다. 미국사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비극적 역사의 현장에서 한인지역이 “백인의 방패”가 된 것이다[1].

LA 인종폭동은 미국 다인종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도시 폭력의 불편한 진실의 순간으로 각인된다.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상점에 대한 방화, 가전제품이나 식료품 등의 약탈,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 한인들의 사투,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이 치열한 항의가 CNN 등 TV 뉴스를 타고 연일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당시 코리아타운의 랜드마크라고 할 대형 슈퍼마켓 지붕 위에 올라가 실탄으로 중무장한 채 상점을 지키는 한인 이민 자영업자 자위대(Rooftop Koreans)의 모습은 한글 간판이 즐비한 미국 내 한인의 ‘인종 섬’(ethnic enclave)으로 전달된다.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했기 때문에 총을 다룰 줄 안다”면서, “어떻게 일군 자산인가” “미국에 와서 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얼마나 긴 시간을 노동하며 마련한 상점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 속에서 한인 이민사회의 현주소가 드러난다. 특히 LA 사태는 “bread riot”이라고 할 만큼 사회적 소수자(minority), 경제적 빈곤층의 폭동의 성격을 띤 것으로[2], 한인 상점을 약탈하던 한 흑인이 “자신의 6명의 아이들에게 한꺼번에 새 신발을 신기게 된 유일한 기회...”라고 말하는 내용이 보도될 정도로 대도시 빈곤의 측면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손실을 입은 2,280개에 달하는 한인상점들도 대체로 영세한 이민 소자본으로, 많은 상점들이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을 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된다[3].

‘1992 LA riot’은 한인 이민사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된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다인종 관계를 형성하는데 미흡했던 데 대한 자성과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사회적 노력이 부재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후 LA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역사적 기록 차원의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대표적인 예로, 한인 상점주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큐멘타리로 제작한 김대실(Daisil Kim-

Gibson) 등의 〈젖은 모래〉(*Wet Sand*)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른 모래처럼 흩어지지 말고, 젖은 모래로 뭉쳐서 미국 내에 굳건히 뿌리내리자는 이민사회의 노력이 눈물겹게 그려져있다. 시민폭동의 소용돌이 속에 치안의 부재, 늦장 대응한 백인경찰력, 자위대를 구성하여 스스로 터전을 지키는 이민자 이방인으로서의 좌절과 분노, 코리아타운을 방위하는 과정에서 18세 한인 이재성(Edward Jae Song Lee)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는데도 아직 그 내용이 규명되지 않은 채로 가족들이 겪는 고통 등 이민사회의 실상이 보도되고 있다[4].

이민사의 트라우마로서 LA 폭동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언어장벽 등으로 사회구조적 한계를 겪으면서 직접 치열한 투쟁을 한 이민 1세대들과, 199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새로운 힘으로 부상하게 된 1.5세대나 2세대 한인들과의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민사회 변화의 연결고리로서, 특히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한흑 관계의 접점을 찾아가는 활발한 사회적 표현은 한흑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을 향한 미래지향적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A 사태 25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 최고의 독립영화제인 선댄스 필름 페스티벌(Sundance Film Festival)에서 ‘NEXT Audience Award’ 수상을 비롯하여 호평을 받은 〈국〉(*Gook*)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이민경제적 측면, 도시 폭력의 쟁점, 인종 역학관계를 포괄하는 한흑관계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민 2세대 한인 작가이자 감독인 저스틴 전(Justin Chon)은 자신이 11세 때 실제로 경험하였던 LA사태의 강력한 인상을 “내 부자의 시각”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조명하고자 한 작품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5]. 당시 아버지의 신발상점이 흑인들에 의해 약탈당하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아버지로 대변되는 이민 1세대가 가족을 위해 일군 상점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리얼리티를 과장없이 전달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작품 전체에 걸쳐 LA사태에 대한 TV뉴스와 그 뉴스를 대하는 각 인종들의 반응, 사회적 정의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한인 이민자의 목소리뿐 아니라 동시에 흑인 가족과 커뮤니티의 입장도 보도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폭동의 근간에 자리잡은 인종 증오, 도시 폭력, 빈부격차, 사회적 좌절, 경제전쟁과 같은 사회문화적 근본 구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인종·다민족·다문화적 LA 도시공간을 고찰하고, LA 인종 폭동의 복합적인 쟁점으로서 한인 이민 자영업의 경제구도와 한흑 갈등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한흑 청년세대의 실천적 공감력과 사회적 소통의 활성화 과정을 통해 사회치유적인 시민의식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흑 갈등이 한인 이민사와 미국사를 집약하는 인종 역학관계의 산물이라는 점과 한흑 간에 서로의 사고구조, 정서, 감수성을 이해하는 문화적 문식성 확장의 청사진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흑관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도시 공간에서의 자본의 구조와 인종 역학 관계

2.1 이민 상점주와 소비자의 한흑 관계

LA 폭동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싶었다는 작가 저스틴 전의 말대로 〈국〉작품에서는 ‘1992 April 29’라는 글자를 첫 장면으로 내보내면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보도한다는 현장감을 강조한다. 인종 갈등의 상황이 하루 종일 TV 뉴스 몽타주로 연결되고, 뉴스를 대하는 여러 인종들이 인종평등이라는 사회정의에 대해 각각 반응한다. “뉴스는 계속 따라가고 있지? “경찰들이 흑인들을 때리고 그런거” “Rodney King shit” “말도 되지 않는 판결...” 등의 화두는 미국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금 LA에서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분노하고 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항의하려고 하고 있다”[6] 등의 대화는 인종 정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대도시 폭력이 증폭되어가는 위기상황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인종비하적 용어인 ‘국’(Gook)을 제목으로 설정함으로써, 인종 증오와 도시 폭력의 쟁점을 전면에서 부각시킨다. 작품 내내 ‘국’이라고 쓴 글자가 화면을 압도한다. 한인 상점 앞에 주차해 놓은 한인 이민자 일라이(Eli)의 차량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Gook’이라고 낙서를 해 놓았고, 이 차량을 하루 종일 타고 다닌다.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이 낙서와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코리아타운의 폭력 사태는 ‘국’으로 살아가는 척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두순자 상점 주인과 같은 경우를 ‘국 레이디’(Gook lady)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작품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국’이라는 경멸적 표현에는 ‘돈만 아는’ ‘이민자’라는 이중의 부정성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제3의 이민물결’을 구성하는 1965년 이후 집중된 한인 이민이 대체로 경제 이민의 성격을 띤 상황에서, 경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특성과 이민자라는 데 대한 경계심이 가중된 ‘국’의 이미지는 과도한 노동 속에서 푼돈에 매달리는 ‘Ugly Korean’으로서 ‘경제적 인간형’(Homo Economicus)이라는 부정적인 상투형으로 받아들여져왔다.

이러한 경제적 특성의 강조는 이민이라는 자체가 모국에서의 역사적 뿌리를 상실한 채 이식된 상황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경제력이 계층 형성의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도 기인한다. 한인 이민자 소자본의 특성상 한인들의 중산층으로의 진출의 상황이 주로 흑인 밀집 지역에서 “최후의 선택이자 최고의 기회”[7]인 자영업 경제행위에 의존하는 지역경제적 맥락으로 인해 한흑 갈등의 복잡성이 가중된다. 한인 이민자들의 ‘경제적 아메리칸 드림’ 성취의 과정에서, 한흑관계는 영세 자영업자 대 빈민 소비자의 구도로 환원되고 있다. 한인들은 영세 소자본이지만 상점 소유주인 상황이고, 자본력이 없는 흑인들은 한인상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로서의 지역사회 내 경제 구도가 다층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흑인들은 한인 이민자 상점주들이 자신들을 소비자로 대상화하여 경제적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고, 성공의 수단으로만 인식한다는 불신의 구도를 증폭시킨다.

특히 자영업 분야의 진출에 있어서 흑인들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흑인 주민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토착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한인 상점 소유주들에게 경제적으로 무능한 집단으로 취급된다고 인식한다. 자영업의 자본을 축적할 능력과 조직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없어 현금거래를 하는 등 ‘계획성 없는 소비자’로 간주되는 상황을 통해 흑인들의 무기력하고 열등한 이미지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미국사에 면면히 흐르는 흑인의 인습적 상투형, 즉 노예시절부터 흑인들을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흑인은 두뇌가 열등하고, 충동적이며 폭력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되어 온 인종 편견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흑인 커뮤니티의 집단심리를 자극한다. 한흑 갈등의 배후에는 자본주의 그물망으로 촘촘히 얽힌 대도시 내의 경제행위의 공간에서, 인종이 경제계층으로 환원되는 구도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상거래가 인종적 긴장 상태를 불러오는 한흑 갈등의 경제지리적 맥락은 실제로 LA 사태 이전에 또다른 대표적인 한인 이민 도시인 뉴욕 등에서 진행되며 미국 전역에 보도되었던 한인 식료품점에 대한 흑인들의 시위와 불매운동에서도 예고되어 있다.

2.2 미들맨과 소자본 자영업

흑인사회에 비취진 한인 이민자의 이미지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백인과 흑인 사이의 중간자, ‘미들맨’(middleman)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아시아인들을 대조집단으로 하여 흑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백인문화의 수사법인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라는 평가에 힘입어 백인사회로의 동화(assimilation) 모델을 지향하는 ‘백색 동화주의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흑인들의 시각에서 한인 이민자들은 언어장벽과 사회적 소수자로서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백인 주도의 인종 위계질서 구도와 인종차별적 사고를 답습하는 미들맨의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사의 지배적인 “인종적 삼각 구도(racial triangulation)”[8] 에서 흑백 사이의 미들맨으로서, 백인사회의 전략적 인종차별 구도를 답습하며 기회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인식되어온 것이다.

흑백의 중간자로서의 이러한 문화적 미들맨의 측면은 중산층 ‘코리안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라는 경제적 미들맨의 개념으로 강화된다. 한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백인 중심의 자본주의 구도 속에서 거대 자본의 물건 공급자와 지역의 말단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경제적 미들맨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민사회 성격상, 백인 거주 지역을 감당할 만한 재정적, 문화적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흑인 저소득층 지역은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틈새시장으로 작용한다[9]. 미들맨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 계층적 측면에서 ‘미국내 중산층’으로의 진입과 동일시되면서 계층과 정체성이 경제적 비유로 환원되고 있다. 소자본 자영업 공간의 소유는 ‘경제이민자 미들맨’의 지표로서, 언어장벽 등으로 중산층 직업취득이 불리한 상황에서 모국에서의 지위 불일치를 해소하는 측면과 연관된다.

〈국〉 작품에 나타난 이민 1세대 Mr. Kim의 상점(잡화점 겸 주류상점)은 흑인 밀집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민 소자본의 형성과 운영방식에서 특징적인 한인들 간의 상호부조, 이민사회 내의 교류, 개인적 관계와 가족 구조에 의존하는 한국식 비즈니스 모델(“Korean-owned mom-and-pop stores”)을 구성하고 있다[10]. 에스닉 소자본 자영업의 내부자 중심의 경영방식은 한인 이민경제 지형도의 특징을 형성한다. 가족노동집약적 상업 형태는 자신들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제한되고 상점 운영의 결과가 지역민들에게 파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인들의 노동력 자체가 취업이 되는 구조적 한계, 미국 내 한국으로서 ‘인종 섬’(ethnic enclave)을 이루는 폐쇄적 상황은 다인종 관계로의 인식의 확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흑인 자영업의 토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 지역 토박이 주민들로부터 적대감의 대상”이 된다[11]. 소자본이지만 자영업을 하는 ‘미들맨’ 한인의 양상과 그러한 상점이 위치한 흑인 지역과의 문화적 차이 등은 심리적, 계층적, 경제적 측면의 한축 갈등을 형성하며, 한축 간의 부정적인 인종 인식을 심화하고 있다.

문화지리적 측면과 경제구도가 연계된 커뮤니티 개념에 있어서 한축 간의 차이는 인종 간 물이해와 갈등을 증폭시킨다. 〈국〉에서 Mr. Kim으로 대변되는 이민 1세대 상점주들은 모국에서 형성된 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주로 혈연과 가족중심의 정서에 의존하고, 흑인 고객들과의 감정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객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별로 나누지 않는 모국의 문화 풍토와 연계된 한인 정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인한 배타성을 가중시킨다. 흑인 지역민들은 한인 상권의 경영방식을 지역사회의 ‘이웃’이라는 공동체 인식의 부재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인으로서 교감의 의지가 없고 따라서 지역주민과 연대하는 지역상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한인 이민자들이 수익성이 높은 흑인 밀집 지역에서 상업적 성취를 하면서도, 주로 교육열

등으로 다음 세대의 성공과 관련된 백인 지역에 거주하는 데서 보이듯이, 자신들을 오로지 돈벌이의 소비자로서만 대상화하며 백인사회로 진출하는 수단으로 본다고 평가한다. 한인 상점은 흑인들을 적대시하고, ‘타자’(Other)로 대상화하며, 심지어 잠재적 줌도둑으로 취급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이 만연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국〉에서 제시된 인종 증오, 도시 폭력의 양상과 연결되는 미들맨 이민 경제구조는 한흑 갈등의 근간이 되는 대도시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촉구하며, 동시에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한흑 간의 문화적 문식성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2.3 ‘미국 내 한국’의 이민자 정서

한인 이민자들이 한국적 정서가 상존하는 에스닉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측면은 한흑 갈등의 원인과 연계된다. ‘미국 내 한국’으로서의 도시공간은 모국으로부터 형성된 단일민족적 정서에 기반을 두고 미국 내 “주변 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로서, 주로 이민 1세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적 멘탈리티를 형성한다. 이민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현지의 사회구조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사회구조와 관련된다”는 지적처럼[12], 비교 준거집단이 미국 내 다인종 문화권이 아니라, 주로 두고 온 모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디아스포라적 인식으로 특징지어진다. 여전히 떠나온 한국에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계층, 재산의 비교와 같이 모국의 사회구조가 준거집단이 되는 이민자 특유의 문화지리적 인식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1세대 한인 이민자의 전형적인 정체성 형성과정을 대변하는 Mr. Kim은 길 건너편에서 고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발상점을 운영하는 일라이(Eli)와 다니엘(Daniel) 형제에게 자신이 이들의 아버지와 한국에서 해병대 동기 친구였고, 함께 신발 상점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는 1세대들의 이민 이유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주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말한다. 다음 세대의 성공을 통해 이민의 정당성을 모국에 입증하는 이주민 정서는 “자녀들에게 집중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지위 상승을 추구”[13] 하는 이민자 특유의 가족중심적인 심리적 기제를 보여준다. 모국에 입증하고 싶은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의식은 모국을 비교 준거 대상으로 삼는 이민자적 멘탈리티의 특성으로, Mr. Kim은 이민에 대한 보상기제로서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불안감과 절박감 등의 복합적인 심리를 보여준다. 이민자 정체성의 근간에 자리잡은 경제성을 보여주는 그의 상점은 이민으로 인해 상실된 역사성의 대체물로서 경제지표가 자존감과 성취의 상징이 되는 보상심리의 자영업 공간이다.

에스닉 이민 자영업의 공간적 특징을 재현하는 Mr. Kim의 상점은 이민자 멘탈리티를 이해하지 못하는 흑인 커뮤니티의 반감을 유발하며 한흑 간의 물이해를 증폭시킨다. 경제 이민자의 전형성으로 재현된 Mr. Kim은 ‘억양있는 영어를 쓰는 외국인,’ 영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국’으로 비하되고, 상점 카운터에 방탄부스를 두른 채 고객의 주문을 받으며, 줌도둑질을 의심하고 고객에게 총을 겨누는 등 불안과 과잉대응을 오가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점을 지키며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어 욕설을 하는 등 방어기제를 사용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두려움과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국’의 전형으로 비춰진다. 불신의 눈총과 불매운동에 시달리며 폭력의 위협이 상존하는 구역에서 상업을 하면서 겪은 절도와 강도 등의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 흑인성을 “위협과

범죄”[14]로 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Mr. Kim은 일라이 형제에게 자신이 왜 흑인을 잠재적 좀도둑으로 취급하고 흑인에 대한 인종 편견,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면서, 한인 상점주들도 피해자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자신이 흑인 구역에 들어와서 일라이 아버지와 함께 신발 상점을 차리면서, 처음에는 고객에게 정성을 다해 신발을 신겨주는 등 성심껏 운영하였다고 한다. 자신이 흑인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신발 끈까지 매어주었는데, 그 고객이 새 신발을 신고 달아다는 등의 경험을 겪으면서 이민자로서 자신의 신분이 강등된 굴욕감과 자존감의 훼손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연계되어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특히 “몇 푼 안되는 신발을 그냥 주어버릴 것을” 그 때문에 “충격으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신발상점의 강도사건으로 일라이의 아버지가 숨지게 되고 그로 인해 흑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왔지만 이 척박한 커뮤니티에서 돈 몇 푼에 목숨을 거는 한인 이민자들이야말로 미국의 고질적인 다인종 대도시 폭력의 희생자라는 점을 말한다.

흑인소녀 카밀라(Kamilla)가 도대체 ‘국’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일라이는 부정적 뉘앙스로서의 ‘Gook’은 본래는 인종 비하적 의미가 아니라 ‘국가’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영국 등 국가의 예를 들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미국’이라는 말을 해준다. ‘아름다운 나라’라는 미국의 의미로 볼 때, 경제적 풍요와 인종 평등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현재 LA 도시공간의 현실과 아이러니칼한 대조를 이루며 사회적 간극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흑 갈등이 다인종 국가로서의 미국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문제의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조망되어야 할 사회구조적 쟁점임을 제시하며, 특히 한인 일라이와 흑인 카밀라와의 대화 상황을 통해 한흑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청년세대에 주목하며, 이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공존의 시민의식을 모색하고 있다.

3. 한흑 청년세대를 통한 공존의 시민의식

3.1 한흑 청년 관계의 경제적 지형도

<국>에서 키이스(Keith)를 비롯한 지역사회 흑인 청년들의 한인 신발상점의 약탈과 방화 시도는 LA 인종폭동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이들은 한인 상점 소유주들이 흑인 구역에서 상업을 하며 그 대가를 독식한다는 시각에서, 부정과 불신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특히 이들이 느끼는 ‘국’이라는 부정적 함축성은 미국사의 고질적인 이민자 대 네이티브 (immigrant vs. native) 갈등의 틀 안에서 심화되고 있다[15]. 흑인들은 백인 사회와 함께 미국사 발전에 동참하고 기여한 자신들이 토착 시민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아시아 이민자들이 모범적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백인 사회로부터 옹호를 받고 있는 사회적 부당성에 분노한다. 미국사의 해묵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민자 이방인에 대한 긴장과 갈등의 정서를 반영한다. LA 인종폭동이 일어나기 반년 전부터 한흑 갈등을 자극한 아이스 큐브(Ice Cube)의 랩 <검은 한국(Black Korea)>은 억양 있는 영어를 쓰고, 언어장벽으로 고객들과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푼돈에 매달리는 한인 상점주들을 비하한다. 특히 다른 인종의 고객들과 차별되게 흑인들을 잠재적 절도범으로 의심한다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흑인들의 주먹을 존중해/아니면 우리가 너희 상점을 바싹 태워버릴 거야/너희들이 흑인 지역을 검은 한국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라고 적대감을

표출한다. 한인 이민자들을 지역사회에서 가까이 접하고 공격 가능한 ‘백색동화주의자 마이너리티’로서 대상화하고 있다.

한인 ‘이민자 상점 주인’(immigrant-merchant)과 흑인 ‘토착민 소비자’(native-customer)의 관계 구도는 지역공동체 개념에 대한 정서적 차이와 경제적 반감이 연계되며 인종간 물이해를 가중시킨다. 흑인들의 부족한 자본력과 경영적 무능력이 한인 이민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분노, 기회의 박탈감, 경제 식민지로 내몰린다는 피해의식은 인종적 불신과 증오를 증폭한다. 한인 상점주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없으며, 가족경영방식으로 인해 일자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자신들을 소비자로서만 볼 뿐이라는 부정적 상투형으로 인식한다. 키이스를 비롯한 흑인 청년들이 바라보는 한인들의 이미지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압박감으로 긴장된 삶을 사는 ‘돈만 아는 국’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지역사회인으로 교감하지 않는 한인 상인들을 “흡혈귀”라고까지 인식한다[16]. 이러한 적대감은 장소 계층사회인 미국에서 공교육의 붕괴, 낮은 가계소득, 경제적 자립의 한계, 일자리 부족 등을 겪는 흑인 지역의 경제적 지형도를 반영하고 있다. 공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으며 에너지의 긍정적 분출 장소가 없고, 가난을 벗어날 기회나 별다른 미래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통의 부재 속에서 마이너리티가 마이너리티의 적이 되는 한흑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국〉은 대도시 슬럼지역의 폭력의 결과가 한흑 간에 예외없이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통해 생명공동체적 상호 연계성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일라이 아버지의 한인 신발상점에 강도가 들었고, 돈을 내주지 않고 버티던 일라이의 아버지와 당시 흑인 종업원이었던 키이스의 어머니가 함께 강도의 총격으로 살해된 비극성을 재현함으로써, 한흑 공통적으로 도시 폭력의 피해자라는 점을 제시한다. ‘집’은 경제적 자립, 안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뿐 아니라 정서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집의 상실로 인해 한흑가정 모두 기회의 박탈, 경제적 난관, 정서적 불안정, 상실의 고통, 외로움과 트라우마를 겪는 대도시 공간의 사회적 소수자들로 제시되고 있다.

이 작품은 도시 폭력의 희생자로서의 한인들을 상세히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공감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흑인 남매들과 마찬가지로 한인 형제도 도시 폭력으로 파괴된 ‘집,’ 상실된 가정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다. 이들은 인종 증오의 시선으로 한인들을 노리는 주변 폭력에 늘 시달리며, 형 일라이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온갖 굴종적인 상황을 감내하고, 동생 다니엘은 R&B가수를 꿈꾸지만 현실의 벽은 엄연하다. 그는 데모 테입을 만들려고 흑인 스튜디오에 가는 길에 키이스를 비롯한 흑인 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목걸이와 현금을 빼앗긴다. 다니엘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흑인 청년들은 공짜 약탈하러 가자는 “free shit south central...”? 문자를 보고, 즉시 코리아타운으로 향한다. 황량하고 척박한 흑인 구역에서 일지라도 없이 청년들이 배회하는 상황에서, 코리아타운으로 “free shit” 하러 가자는 메시지가 퍼지는 LA 인종폭동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현금을 빼앗긴 다니엘이 흑인 스튜디오에 널 녹음비가 없다고 하자, 당장 약탈로 대신 값으라는 말에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다가 흑인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국〉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흑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유발하는 자본주의 대도시 공간을 보여줌으로써, 한흑 갈등이 빈부격차와 폭력이 얽힌 미국사회 권력구도의 총체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또한 미국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주의,’ 인종 서열 관념 속에서 이러한 경제적 지형도가 인종적 지형도로 해석되는 환원주의적 사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현재진행형인 백인 주도 사회의 인종 삼각구도, 백인 정치의 권력구도와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와 사회적 독해력의 부재는 한흑관계 개선과 공감 형성의 난관으로 작용해왔음을 진단하고 있다.

3.2 한흑 공감의 영역 추구

LA 폭동이 시작된 1992년 4월 29일 Mr. Kim의 상점 상황은 두순자 상점 주인의 코리안 아메리칸 드림의 비극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한흑관계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사회적 소통의 시도이다. 오렌지주스 한 병을 줌도독질한 것으로 의심되어 총격 사망한 흑인소녀 할린스의 비극은 당시 흑인 사회를 뒤흔들고 한인에 대한 증오의 감정, 시위와 불매운동을 촉발하며 LA 인종폭동을 예고한 사건으로 인종 편견, 자본주의 도시공간, 빈곤지역의 폭력 등 한흑 갈등의 포괄적 쟁점을 담고 있다. 〈국〉에서, 일라이가 흑인소녀 카밀라를 Mr. Kim의 상점에서 구해주는 장면은, 흑인 가족을 향한 사과와 호소의 의식으로 전개된다. 시간을 되돌려 할린스의 비극을 막고 싶은 한인사회의 안타까움과 한흑관계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의 시도이다. 할린스의 오렌지주스는 트윅키 과자로 대체되어 재현되고 있다. 일라이는 Mr. Kim의 상점에서 트윅키에 손을 댄 카밀라를 야단치면서도, 이후 카밀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며 신발상점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면서, 인종을 넘어서진 진정한 우애를 느낀다. 잔돈을 바꾸러 Mr. Kim의 상점에 다시 들른 카밀라에게 그가 욕설을 하고 총까지 꺼내들자, 일라이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트윅키를 가져다준다. 한흑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인종 정의 실현과정을 통해, 평등한 인권감수성에 대한 공감의 영역을 탐색한다.

카밀라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Mr. Kim에 대항하여, 일라이가 자신을 친동생처럼 보호하고 구해주는 상황을 통해 LA 한흑 갈등의 한가운데서 소중한 인간관계를 쌓는 경험을 한다.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한 항의로 학교가 쉬자 갈 곳도 없이 외로움을 느끼던 카밀라가 이 한인 신발상점에서 일하며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한인 형제와 대화하고, 함께 흑인음악을 듣고 춤추며 인종적 차이점 보다는 공감의 단계를 경험한다. 인종을 넘어서는 인간적 교류의 감정이 싹튼 속에서, 언제든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한인 신발상점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family’가 생긴 정서적 안정감과 감동을 느낀다. 오빠 키이스가 “한인들은 흑인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며, 친구가 아니고, 오직 이용만 한다, 너를 이용하는 것이고, 엄마도 이용했어. 그렇게 엄마도 목숨을 잃었어”라고 욕박질러도, 카밀라는 한인 형제가 “나를 이용하지 않아, 나를 ‘가족’으로 대한다”며 항변한다.

일라이는 카밀라가 상점 일을 도운 데 대한 감사와 우정의 표시로 운동화를 선물한다. 또한 아버지의 유품에서 찾은 사진을 카밀라에게 건네주는데, 이 사진은 일라이의 아버지와 당시 종업원이었던 카밀라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카밀라가 함께 신발상점에서 찍은 사진이다. LA 인종폭동을 특징짓는 대도시의 비극적 폭발력의 공동 피해자로서, 그 자녀 세대가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우애의 단계에 도달한 점은 ‘한흑 가족’ 구성의 상징적 단계이자, 한흑관계 개선의 실천적 공감대로 제시된다. ‘인종을 초월한 가족’은 한흑관계의 인식 변화와 화해의 구도를 의미하며,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상투형으로서만 범주화될 뿐 개인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존재해왔던 한인과 흑인이 서로를 개인으로 인식하는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석된다. 한흑 간의 상투적 인식과 문화적 물이해가 갈등을 심화해온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주입된 인종주의를 넘어서진 개인 간의 교감의 단계는 한흑 갈등 극복의 사회치유적 시민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실험의 근간에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존재’(Homo Socioempathicus)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마음을 움직여 사회변화를 이끄는 공감 소통력은 인종주의적 시각을 극복하는 사회적 공존의 역량과 연계되고 있다. 실상 다니엘이 R&B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한흑청년 사이에는 문화적 감수성이나 예술적 측면에서 정서적 공감의 교류가 존재해왔다. 도시 대중문화 차원에서 ‘아프로-오리엔탈리즘’(Afro-orientalism)과 같은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17], 마이너리티 청년들의 정체성 문제, 도시의 고독과 좌절, 인간적인 그리움과 같은 공통적인 정서와 감수성의 혼성의 토대가 두드러진다. 미국 토착 시민으로 자리잡아온 한인 형제의 대사와 페이소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어 어휘나 뉘앙스의 인식, 문장구조에 있어서 한흑문화가 자연스럽게 혼합된 공통적 색채가 짙게 나타난다. 이 작품은 청년세대들의 공감역량, 공감소통, 공감공간을 부각시키는 실험을 통해 인종을 집단적으로 범주화하는 환원주의적 사고 틀을 넘어서는 초인종적인 시민의식의 형성과정을 탐색하고 있다.

3.3 미래지향적 공존의 커뮤니티

〈국〉은 사회적 공감에 근거한 한흑공존의 영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흑 청년세대가 겪게 되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 경제적 주변화, 인종 편견, 사회적 소수자들의 부정적 상투형을 재생산하는 미국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구조에서 누적되어온 인식의 극복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너의 집안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18]라는 LA 인종폭동의 경고음은 한흑 갈등의 폭발력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키이스는 동생 카밀라에게 ‘국’의 상점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지만, 카밀라의 가방에 일라이가 준 ‘에어 조단’ 운동화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고, 외로운 카밀라가 한인 상점에 드나든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민자 상인들의 영역 침범에 대한 반감과 분노 속에서 폭력만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한인들이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와 신발상점을 하면서 벌어진 충격사건과 그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인 혐오를 품어왔던 키이스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화를 약탈하러 가기로 모의하게 되면서 LA 인종폭동의 비극이 재현되고 있다.

〈국〉은 한인의 ‘타자’(Other)로만 인식되어온 흑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충실히 재현함으로써 한흑관계에 대한 균형잡힌 전망을 제공한다. 한인상점 약탈 모의를 듣게 된 카밀라의 언니 레지나(Regina)가 전화 녹음으로 이 사실을 일라이에게 알려주는 것은 한흑이라는 인종적 시각으로 상투화되지 않은 인간적 교감의 행위, 연민과 감정이입에 근거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카밀라도 한인 형제를 구해야한다는 생각에 한달음에 달려가 신발상점에 함께 있게 된다. 지붕 위에서 저항하는 한인 형제의 모습은 LA 폭동에서 슈퍼마켓 지붕 위에 올라가 상점을 방어하던 한인 자위대를 재현하고 있다. 키이스가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하려는 가운데, 지붕에서 혼자 내려가 상점 안으로 들어간 카밀라는 이 상점을 지키려는 생각에 자신이 집에서 가져온 총을 꺼냈다가 넘어지면서 총이 오발되고 그대로 가슴에 맞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일라이와 카밀라가 형성한 ‘한흑 가족’의 연결고리는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인종 증오적 시각과의 충돌 속에서 생명의 상실이라는 대가로 돌아온다. 키이스는 카밀라의 죽음이 바로 이 저주스러운 ‘국’의 상점에 드나든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욱 분노한다. ‘국’ 상점에서 자신의 가족이 또다시

희생되었다는 생각에 병원 바닥에서 엘리에게 폭력을 가하던 키이스는, 결국 한인들에 대한 자신의 증오감이 운동화 몇 켤레와 동생의 생명을 바꾸는 현실로 돌아온 비극적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처절하게 오열하고, 이를 달래는 일라이의 모습이 나타난다. 경제적, 사회적 분노를 인종 간에 투사하는 폭력의 끝자락에서 한흑 인종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카밀라를 향한 격렬한 상실감과 슬픔, 그 애도의 공통 영역에서 교감하게 된다. 인종주의가 공통적인 휴머니티에 대한 공감과 교류의 한계로 작용해온 인종차별, 인종비하, 인종 증오의 종착역에서, 결국 개인으로서 조명되는 ‘보이는 인간’으로의 의식 변화, 개체 간의 관계와 존중에 기반을 둔 공존의 영역이 탐색되고 있다.

이 지구종말과도 같은 황량한 지역에서 한인 이민상점이 불타는 장면은 LA 인종폭동의 불타는 코리아타운을 상징하고 있다. 키이스가 방화를 하려고 했던 상점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불태우는 일라이는 불타는 상점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상업의 터전이 파괴되는 경제적 손실보다는, 다인종 평등의 꿈을 강조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서 운동화와 생명을 바꾸는 적박한 사회의 실상을 절감한다. 사회정의 실현을 향한 영화 텍스트 특유의 극적 영역 속에서, 한흑 갈등의 희생양인 카밀라에 대한 공동의 사회적 ‘의식’(ritual)이 수행된다. 마치 환생한 듯 불타는 상점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춤추는 카밀라의 모습은 이 대가를 헛되이 하지 말고 한흑 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한흑관계 화해의 에피파니로 분석된다. 인종 갈등의 폭발력이 생명의 파괴로 나타난 카밀라의 희생양적 죽음은 한흑 간에 ‘생명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상호 연결성과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한흑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인종적 환원과 범주화를 넘어서는 해방의 의식으로서, 사회 공존의 그물망의 윤리와 가치를 인식하고, 인종적 다원성과 다성성을 인정하는 탈경계적 시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치유적 시민담론의 장을 열고 있다.

저스틴 전은 〈국〉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작품이 프랑스 영화 〈증오〉(La Haine)라고 밝히고 있다. 도시 빈곤, 분쟁과 좌절, 경찰 폭력, 인종 역학 등 LA 사태와 연관된 주요 요소들이 들어있는 이 필름에서 인종 증오와 그 극복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인종간 긴장관계가 있는 반면, 우정과 사랑도 있다” “우리 모두는 이웃으로 공존한다”(coexist)[19]는 그의 표현처럼, 청년세대가 생명의 대가를 치루며 얻은 생명공동체에 대한 감수성은 LA 상황 치유의 좌표일 뿐 아니라, 휴머니티의 교감을 바탕으로 한 공존의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에서 제시한 ‘공감력의 확장을 통한 사회적 공존의 영역’은 문화 교육을 통한 공감 소통의 활성화, 사회치유적 시민의식의 제고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LA 대도시 공간에서의 인종 역학관계의 폭발력, 한흑 간의 적대적 인종 인식의 악순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제시된 이러한 공존의 시민의식은 미국 내 한인 이민사회의 현주소를 조망하는 사회적 독해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공동체로서 미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지향적 시민담론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4. 결론

LA 인종폭동은 한흑 마이너리티 사이에 얽힌 도시경제의 이해 관계, 한인 소자본의 특성과 경제적 지형도, 인종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인 상점은 단순한 상거래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도시의 구조적 측면, 경제구도의 요소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미국사와 한인 이민사를 집약하는 소우주로 기능한다. 한흑 갈등의 역사를 통해, 피부색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종 위계질서적 구조가 사회 전체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역학 관계의 산물인 것으로 고찰된다.

〈국〉 작품의 분석 결과 비극적인 LA 인종폭동의 유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인과 흑인 사이의 커뮤니티 개념이나 교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종간의 상호 이해를 확장하는 문화적 문식성의 제고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제시한다. 실제로 LA 사태 이후, 한흑관계 개선을 위해 협조하는 한흑연맹(The Korean/African-American Alliance)이 구성된 바 있다. 한흑연맹은 지역 한인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흑인 주최 행사나 흑인 빈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한흑공존의 커뮤니티 인식을 확장해왔다. 미국 내 마이너리티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공통적 관심을 통한 문화 문해력의 강화 노력은 LA 시민 폭동의 유산으로 평가된다.

둘째, 한흑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인종적, 경제적, 도시적 공감영역의 활성화와 공존의 시각을 미래지향적 시민의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시각으로 조명된 다인종 커뮤니티, 이웃, 우애와 우정의 개념에 관한 사회적 독해력의 확장은 LA사태 한흑 갈등의 돌파구를 보여준다. 한흑관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한흑 사이의 다인종적, 다문화적 감수성의 공감대를 찾아내는 공존의 에피파니는 청년문화의 의미 있는 성과로 분석된다. 이 작품에서 Mr. Kim의 상점으로부터 일라이 형제의 상점으로의 진화 과정은 인종적, 경제적, 도시학적 측면에서 한흑관계 개선을 향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흑 청년세대의 깨달음은 인종 증오를 넘어서는 에피파니적 경험으로, 언어장벽과 다인종적 문식력이 약한 이민 1세대의 한계를 극복하는 미래세대 주도의 다문화적 파급력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인 1세대가 지닌 디아스포라적 인식, 이민자로서의 보상심리 등을 넘어서서, 미국의 네이티브로서의 청년문화적 감수성의 공유를 통해 한흑관계를 개선하며, 한흑 간의 공감의 영역이라는 미래지향적 국면으로의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한인 이민사 내부적 측면에서 LA 사태는 이민 세대간의 연결과 상호인식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초반에 LA 폭동을 직접 경험했거나 부모세대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들어온 이민 1.5세대나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은 이민자와 네이티브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 부모세대와 동시에 흑인 청소년 문화를 접하며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은 이러한 문화적 결과물로서, 새로운 세대로의 확장을 통한 한국계 미국 이민사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게 평가된다. 이민 1세대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곤경과 이민자 멘탈리티의 한계를 넘어서서 문화적으로나 언어 면에서 미국의 토착시민으로서, 이민자대 네이티브라는 틀을 극복하는 세대간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인 이민사회 방향 전환의 문화적 산물로서, 한흑의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국〉은 사회치유적 인권감수성, 실천적 공감의 시민의식, 미래세대 다인종 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References

- [1] Ronald Weitzer, Racial Prejudice among Korean Merchants in African American Neighborhoods, The Sociological Quarterly, (1997), Vol.38, No.4, pp.587-606, DOI : 10.1111/J.1533-8525.1997.TB00755.X

- [2] Edward Taehan Chang, Los Angeles Riots and Korean - African American Conflict, *American Studies*, (2002), Vol.25, pp.305-340, UCI : G704-002053.2002.25..009
- [3] Raw Footage of Los Angeles as the 1992 Riots Erupt Throughout the City/From the Archives/NBCLA, <https://youtu.be/FGRRpgOxMn8>
- [4] Wet Sand, https://youtu.be/_2dLI8vOAO0
- [5] CAAM(Center for Asian American Media), Justin Chon gets Personal with “Gook,” His New Film about the L.A. Riots, <https://caamedia.org/blog/author/caamguest/>
- [6] Gook, <https://www.imdb.com/title/tt6057032/>, at IMDb
- [7] Soraya Nadia McDonald, ‘Gook’ director Justin Chon talks filmmaking, race and the Rodney King Riots, <https://theundefeated.com/features/gook-director-justin-chon/>
- [8] Claire Jean Kim, *Bitter Fruit: The Politics of Black-Korean Conflict in New York C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9] Nancy Abelmann, John Lie, *Blue Dreams: Korean Americans and the Los Angeles Rio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10] Edward Taehan Chang, Los Angeles Riots and Korean - African American Conflict, *American Studies*, (2002), Vol. 25, pp.305-340, UCI : G704-002053.2002.25..009
- [11] Edna Bonacich, John Modell, *The Economic Basis of Ethnic Solidarity*,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1980)
- [12] Kyong Hee Min, *The History of American Immigration: Theory and Practi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8), <http://www.yes24.com/Product/Goods/3020417>
- [13] Young-Kyun Yang, Moon Ok-pyo, Park Gye-yeong, Lee Jeong-deok, Che Su-hong, *LA Koreans in Multi-ethnic Relations*, Gyeonggi: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8), <http://www.yes24.com/Product/Goods/3314981?Acode=101>
- [14] Ronald Weitzer, Racial Prejudice among Korean Merchants in African American Neighborhoods, *The Sociological Quarterly*, (1997), Vol.38, No.4, pp.587-606, DOI : 10.1111/J.1533-8525.1997.TB00755.X
- [15] Edward Taehan Chang, Los Angeles Riots and Korean - African American Conflict, *American Studies*, (2002), Vol.25, pp.305-340, UCI : G704-002053.2002.25..009
- [16] Lucie Cheng and Yen Espiritu, Korean Businesses in Black and Hispanic Neighborhoods: A Study of Intergroup Relations, *Sociological Perspective*, (1989), Vol.32, No.4, pp.521-534, DOI : 10.2307/1389136
- [17] Bill V. Mullen, *Afro-Orientalism*, Minneapolis: U of Minnesota Press, (2004)
- [18] Steph Cha, *Your House will Pay*, New York: HarperCollins, (2019)